



[뉴스] 유명희 등 8명 WTO사무총장 출사표 02



Economy

코스피	2167.90 (+9.02)	코스닥	772.90 (+6.94)
금리 (미국 3년)	0.840 (+0.001)	환율 (원/달러)	1195.50 (0.00) (9일)

옵티머스 전원 퇴사 퇴직으로 면피 꼼수 5000억 보상 ‘깜깜’

사태 발생 후 직원 12명 모두 퇴사 실사단 ‘디지털 포렌식’ 작업 검토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는 사모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참극이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를 속였다. 하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배상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다. 사태 발생 후 직원은 모두 퇴사했고,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운용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퇴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은 현재 0명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12명에 달했지만, 환매 중단 이후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 상태다.

직원이 남아있지 않아 자산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애를 먹고 있다. 기본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 방식을 조사하고, 자산을 실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데이터가 담긴 각종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렌식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걸려서다.

결국 직원들의 전원 퇴사로 자산 실사 기간은 길어지게 됐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도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부장 강국 도약... 글로벌 공급 기여”

文 대통령, 이천 SK하이닉스 방문 “수출규제 1년 다과 다른길 갈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1년을 앞두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찾아온 국내 산업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해 글로벌 분업구조 균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 ▲첨단산업의 세계공급망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과 관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한 핵심 관리품목 338개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육성 ▲디지털 공급망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소재 혁신 AI 플랫폼 도입 등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부채 공화국의 그늘

은행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족한 주택구입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다. 일부는 주식투자에 나설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을 통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

요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과 대출 만기연장을 은행에 주문하고 있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로 연명하는 중소기업 증가에 따른 부실을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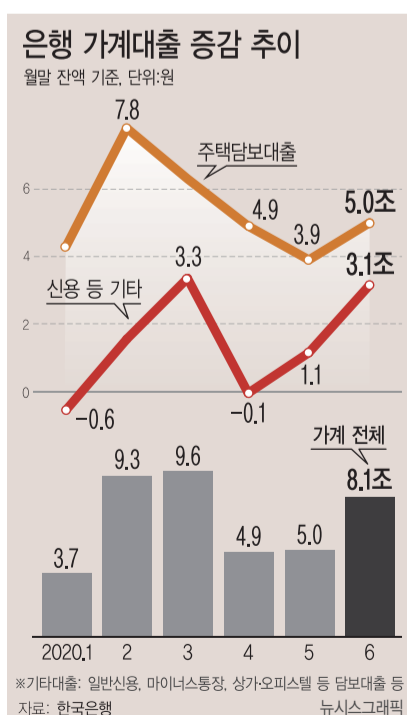
1 집 사고 주식 사고... 가계대출 8.1조 ↑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신용대출만 3조 늘어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8조원 넘게 늘었다. 기존 자금소요가 많지 않던 6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거래는 물론 공모주 청약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신용대출은 6월에만 3조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조1000억원이 늘면서 전월 5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이 늘었다. 아파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대대출 취급도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이 늘어 전월 증가폭 1조1000억원의 3배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하면 zombie기업 늘어 은행 부실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물경기 회복 없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업과 은행 모두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및 기업 자금사정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은행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가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된 만큼 부담감이 적잖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매달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4월말 기준 0.21~0.33%였던 연체율은 한 달 후 0.23~0.35%로 집계됐다.

게다가 은행들은 일괄적으로 추가 만기연장을 할 경우 zombie기업의 존속으로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zombie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